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의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와 기독교상담 전략

강 경 미 교수
(Ph.D., 그리스도대학교)

국문초록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터민들의 한국사회 정착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정책이나 지원, 탈북자 개인의 역량, 주변의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탈북 주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이다. 많은 탈북주민들이 북한 이탈 이전부터 경제적 곤경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아왔으며, 또한 탈북과 도피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여기에 한국에 입국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문제와 언어문제, 직장문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인간관계 어려움,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등, 이미 새터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물론 새로운 국가정책이나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특히 한국사회에서 겪는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 상담을 새터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상담전략으로 지역사회상담, 동료상담, 위기상담, 예방상담, 교회에서의 집단상담, 단기상담, 타문화상담 등을 고찰해 보았다.

중심단어 : 북한이탈, 새터민, 국내정착, 가족문제, 기독교상담전략

I. 여는 글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는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미 금강산 방문객이 100만을 넘어섰고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의 희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이 분단상태에서 보여준 상호교류를 남북한 간에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교류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상호교류와는 별도로 앞으로 북한 탈출 주민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입국 북한이탈 주민 수는 2006년 5월 현재 총 8,403명이며, 이중 60%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성별로는 2000년도 이전까지 남성 혼자 온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이탈주민의 수가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입국자 수의 증가추세는 1998년도를 기점으로 급증하다가 2002년 1,000명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도에는 1,383명이 입국했다.¹⁾

이와 같이 북한 이탈자들의 한국정착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통일부는 2004

년도 하반기부터 국내 정착탈북자들을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말 표현인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로 탈북자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탈북자”라는 용어도 문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탈북자들에 갖는 편견과 무시, 차별 등으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 부담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새터민들은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 친구나 형제, 친척이 없는 외로움,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 취업 및 직장 생활 문제 등을 들었다. 특히 남한국민과의 생활수준 비교와 함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착금 지급으로 인한 탈북주민과의 비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실제로 북한주민의 병원진료 현황에서 드러나고 있다. 진료결과에 의하면 새터민들이 탈북과정에서의 긴장감, 환경변화, 남한사회 부적응 등으로 전체 진료환자의 약 27%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그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²⁾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터민 가정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의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에 보람을 느끼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적응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독교상담 차원에서의 지원 및 상담전략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새터민의 국내정착현황

국내입국 북한이탈 주민의 수는 2006년 5월 현재 총 8,403명이며, 성별로는 2000년도까지는 남성이 높았다. 이후 반전되면서 현재는 남성 32%, 여성 68%로 여성이탈주민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노인이나 청소년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990년 이전에는 가족을 동반한 이주가 거의 불가능 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나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이 함께 국내에 이주하거나 후에 잔류가족이 이전에 이주한 가족 성원과 합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³⁾

그 동안의 입국자 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1998년 이후 매년 2배씩의 급증세를 보이다가 2002년 1,000명을 상회한 후부터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383명이 입국했다. 입국자들의 북한에서의 생활상을 분석해 보면 직종 분포는 44%가 무직자였으며, 또한 유직자의 70%는 일반노동자로 비교적 생활수준이 열악한 사람들이다. 입국자들의 출신지역은 63%가 함경북도 출신이며, 평양 출신은 3%에 불과했다. 또한 탈북동기는 입국자 대부분이 노동자 출신이었던 것과 같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고가 주요원인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정착 현황을 보면 약 60%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편중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새터민들의 취업 직종 50% 이상이 제조업 분야에 단순 노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다.⁴⁾

2. 정부의 새터민에 대한 지원 및 정책추진방향

북한 이주자에 대한 현행 한국정부의 대책과 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주자에 대해 포상에서 정착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단기적 지원체제에서 장기적인 지원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착지원체제의 개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 적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적응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독립적이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남한사회에 생산적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지원체제의 개편을 통하여 북한주민이 남한으로의 탈출을 결정할 때 확신을 제공하고 또한 향후 북한 주민들의 탈출동기가 포상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으로의 이주를 통하여 남한 주민과 동등한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기 위한 이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의 전환은 통일과정 및 통일과정 이후에도 남한으로의 이주가 북한주민의 막연한 기대감이나 환상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삶과 자유에 대한 갈망에 근거하는 건전한 이주동기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⁵⁾

새터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새터민의 자립,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할 확대 등이다.

먼저 새터민의 자립·자활능력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정착금을 ‘기본금’과 취업노력을 유도하는 ‘장려금’으로 구분 지급함으로써 새터민들의 자립적인 정착문화를 조성하며, 또한 노령자·장애자·편부모이동 보호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새터민간의 정착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급기준 우대제를 폐지하고, 거주지 정착

후 1년부터는 근로를 조건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자활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정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먼저 남한사회 적응교육으로 취업과 취학을 연계한 현장체험 및 준법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탈북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과 민간단체의 학습 지원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 직업적응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독자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잃어버린 인간의 감성회복을 위해 밀착형의 거주지 정착도우미제 실시하고, 지자체의 지역협의회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등 민간단체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3.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과 정부대책

정부의 북한 이주민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이탈자에 대한 대책이고 둘째는 북한을 탈출하여 현재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탈출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들 수 있다. 북한 주민의 탈북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회 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권층에 대한 불만과 집단주의 사상이 악화되면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탈북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⁶⁾

1) 탈북증가의 원인

북한사람들의 탈북증가의 원인은 북한사회전체의 만연된 부패현상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부분적 체제개방을

통한 서구문화의 영향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붕괴 및 북한 사회의 심각한 경제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① 시구문화의 영향 : 북한이탈주민들과 방북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인들의 사상적 이완과 가치관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 이래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이라는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서구관계 개선 및 부분적 체제개방의 과정에서 서구사조 및 문물의 영향으로 나타난 자본주의 ‘황색바람’이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사람들 사이에 점차 ‘자유주의’ 경향과 사상적 해이 및 혁명성 약화, 집단적 조직생활을 벗어난 행동 등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②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나타난 세계적인 민주화 추세는 북한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가치지향과는 다르게 전체 집단적 사상에 대한 동요와 함께 혁명의식이 약화되면서 가치관과 생활태도에 많은변화를 초래했다.

③ 심각한 경제난 : 북한주민들의 사회일탈행위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1990년대부터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경제난이다. 경제 침체로 인한 물질적인 결핍과 생활고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사상과 정치보다는 돈과 물질적 가치,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중요시하는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형성을 더욱 촉진했다.

2)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정부대책

탈북자 수는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었던 90년대 중반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을 대부분이 중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제3국을 통해 다시 남한이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를 원하고 있다. 제3국 체류 탈북자 수는 총 수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제3국 체류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들이 은둔, 도피생활을 하는 관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북한 탈출 주민의 신분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이로 인해 북한 탈출자의 체포, 송환, 처형의 비인도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보다 강화해서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중국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설득과 압력으로 북한 탈출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중국 내 보호 및 수용시설 등의 건립을 통하여 북한탈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및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⁷⁾

4. 새터민 가정의 남한 사회 부적응 문제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은 출신배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매우 다양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조건도 동일하지 않다. 또한 새터민들의 직장 및 거주지, 한국 내 연고자 존재 유무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 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방식과 시점도 다르다. 그리고 새터민들의 북한에서 삶과 직업 및 신분 등이 남한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심리적 갈등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와 경제적 부담, 또한 이에 가중해서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화 등은 새터민 가족들의 건강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

1) 새터민 가족의 건강문제

많은 탈북주민들이 이미 탈북 이전부터 기아와 정치적 압박, 그리고 중국과 제 3국에서의 불안한 도피생활을 경험했으며, 또한 한국에 정착해서는 사회 부적응이나 외로움, 실업과 같은 문제로 정신건강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새터민의 상당수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자녀의 중고교 진학률도 크게 떨어지는 등 새터민 가정의 한국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립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진료현황’에 따르면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받은 새터민 환자 156명 중 우울증, 불안신경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가진 환자가 전체의 27%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불안 신경증 등 정신과적인 질환이 19명(9%) 발생했고, 이로 인한 두통이 19명(9%), 그리고 위장장애 증상도 19명(9%)이 발생하는 등 총 27%인 57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관절통이 22명(10%), 염증 및 출혈로 인한 산부인과 진료 16명(7%), 호흡기계 염증 9명(4%), 허리 및 목 디스크가 8명(3.7%), 긴염 및 골반 내 염증, 협심증이 각각 6명(2.7%), 암도 4명이었고, 입원 도중 사망한 북한이탈주민도 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탈북과정에서 겪은 긴장감과 급박한 환경변화 및 남한사회 부적응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민의 정신건강관련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로움과 죄책감,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외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지각된 차별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예측 요인을 3년 동안 추적 연구한 조영아 외(2005)의 보고에 의하면 탈북주민의 우울수준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남성의 우울수준이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과 북한에서 결혼한 경험이 있는 집단, 건강이 나쁜 집단, 북한 내에서 심리적 외상이 많았던 집단, 남한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집단에서 우울수준이 높았다. 이중에서도 새터민의 우울감은 북한이나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보다는 남한 정착 후 겪는 스트레스가 더 강력한 요인으로 이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2) 새터민 가정의 자녀 및 가족의 문제

단독입국 탈북자에 비해 가족이라는 1차적인 집단으로서 적응해가는 새터민 가정들은 가족원간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로 인해 적응에 긍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적응의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간의 마찰과 갈등이 존재하여 오히려 정책과정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게 한다.¹¹⁾ 실제로 탈북자 가족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탈북자 가족 내에 부부갈등과 폭력, 이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견대립과 자녀의 반항 등이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탈북자 문제에 관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1) 새터민의 가족문제

새터민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정의 구성원으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괴리감과 공감대 부족, 경직된 의사소통 등은 새터민 가족들의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터민 가족들은 가족 외부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제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지원체제의 위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신분보호의 역효과, 종교적 교리나 조직체제의 압박감, 편견과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¹²⁾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 가족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의견차이, 역할갈등, 신체적 폭력문제 및 배우자의 술버릇 등의 문제와 함께 안정된 직장이 없고 취직이 잘 안 되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등을 주요 스트레스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북한에서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여 남성우위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강화되어서 부부간의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했다.¹³⁾

새터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동반 새터민의 양적 증가와 성, 연령, 계층의 다양화는 단독으로 이주한 새터민과는 다른 양상의 적응과정을 예견하게 된다. 가족을 동반한 경우 북한 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로 제시되는 외로움과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나 난민, 이주민의 긍정적 적응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고려 할 때 가족동반 북한이탈주민은 단독이주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적응이나 정신건강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일 것을 예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최근에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적응에서 전체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와 가족 내의 갈등, 이혼, 폭력 및 음주문제, 그리고 자녀교육에서의 무력감 및 역할갈등 등 가족체제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했다.¹⁴⁾ 이와 함께 한인영(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 동반 북한이탈주민이 단독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더 높은 우울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따라서 국내 이주한 북한 이탈 주민들도 국외연구결과에서 나타났던 난민들의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¹⁶⁾ 특히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집단에서 남한 정착 후 2-3년이 지난 탈북주민의 적응 및 정신건강이 가장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이와 같이 이주자들은 초기 1-2년 동안에 정신건강이 현저하게 악화되기 때문

에 이들의 사회통합이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건강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⁷⁾

(2) 새터민 가족의 자녀문제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질적 분석한 결과 학업의 부진과 학교 적응의 곤란, 교사와의 관계, 진학과 진로결정,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인간관계 형성과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6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¹⁸⁾

또한 새터민 자녀의 중고교 진학률도 남한사회 전체 진학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새터민 가정자녀의 중학교 취학률은 49.1%이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6.6%로 한국의 일반 중학교(94.4%)와 고등학교(92.2%) 취학률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 비율도 새터민 자녀의 경우 중학생은 16.2%이며, 고교생은 14.5%로 나타나서 국내 일반학생의 중도 탈락률(중학생 1.1~1.9%, 고교생 1.1~1.7%)보다 최고 15배나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새터민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장기에 있는 탈북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¹⁹⁾

Berry(2002)는 개인이 겪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게 되면서 동화(assimilation)와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및 주변화(marginalization) 등 4가지 유형의 적응 형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동화’는 자신의 고유전통이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은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정착 사회와도

충분히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는 외부세계와 정착사회문화 간에 연결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자기 고유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면서 정착사회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주변화’는 자신의 고유집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착세계 양쪽과의 관계를 모두 끊은 상태를 말한다.²⁰⁾

이러한 4가지 적응유형을 기본으로 해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정체감의 변화 양상을 연구한 금명자 외(2004)의 연구결과를 보면 탈북청소년들은 주로 통합과 동화유형을 보였다. 이를 정착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4개월 이하의 탈북청소년들은 ‘통합’과 ‘동화’ 현상을 보였고, 보호기간이 끝난 후 혼자살기 시작한 후 1년 동안에는 ‘분리’를 1-2년 사이에는 ‘주변화’를 사용하였고, 2년이 경과 한 후에는 ‘통합’ 유형이 증가하였다.²¹⁾

Ⅲ. 새터민 가정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와 기독교 상담

1. 새터민의 복음화와 기독교상담

Narramore(1964)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떻게 공헌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9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²²⁾

- 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 ②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 ③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을 일으킨다.
- ④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생활로 인도한다.
- 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 ⑥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 ⑦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을 주신다.
- ⑧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이 된다.
- ⑨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악과 죄에서 인간을 보호해주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주민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새터민 복음화의 신학적 기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딤후 2:4) 분이기에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아담(Adam)의 원죄(original sin)아래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김일성 우상화와 무서운 조직생활과 사상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한 탈북주민과 새터민들을 향해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2) 새터민 가정의 복음화와 기독교상담의 목표

성경은 삶에 관한 모든 질문에 충분히 대답 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독교 상담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한 변화이기 때문에 새터민들에 대한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²³⁾

- ①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삶의 소망과 함께 목표를 새롭게 형성하도록 돕는다.
- ②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한다.

- ③ 신앙의 실천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과 생활태도로 남한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영적 성장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한다.

3) 새터민의 복음화를 위한 기독교상담의 접근방향

기독교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종으로 신앙과 상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독교 상담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자신의 지식과 통찰을 사용해서 내담자들을 인격적으로 보다 완전하게 하며,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 보다 원만하게 살면서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²⁴⁾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새터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그들이 남한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욕구와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기위해 밑썸에 부합되는 상담방법을 찾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을 통해 위에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비록 새터민들이 처해 있었던 북한의 사회구조와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기본적인 욕구와 문제는 특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한다.

둘째, 관심의 초점을 새터민들의 삶 자체에 맞추고 그들이 살아왔던 체제와 삶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그들이 처한 현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한다.

셋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성을 회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함께 선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서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를 덜어주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2. 새터민의 복음화를 위한 기독교 상담전략

Fish와 Shelly(1998)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영적 욕구를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용서의 근원을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요소가 결핍된 영적 갈망상태라고 설명했다.²⁵⁾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영적 욕구는 본질적인 것으로 먼저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교회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경적 상담이나 치유를 통해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한반도의 전 민족을 복음화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선 남한의 정착한 새터민들에 대한 복음화 사업을 통해 그들이 통일시대의 말씀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기독교 상담전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 상담

장시간에 걸쳐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상담은 변화되어 좀 더 적극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현장 개입식 상담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새터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회, 기타 지역사회단체들이 상담실을 개설하거나 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과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상담은

여러가지 말씀과 전략을 응용해서 새터민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새롭게 정착하는 새터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담이다.

2) 동료상담

기독교 상담자 게리 콜린스(Gary R. Collins)는 “상담은 꼭 전문가만이 행하여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나 기독교 상담자로서 특권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예수께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의 취지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은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제자로 삼고 더 나아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와 타인의 관계를 회복시켜 내부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안을 심어주는 것이며, 이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남을 돕는 일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²⁶⁾ 이런 의미에서 동료상담은 그리스도인 친구간의 상담으로 약간의 훈련과정을 거치면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이다. 새터민 중에서 기독교 신자를 동료상담자로 훈련해서 현장에서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 새터민을 이용한 동료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가깝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시간을 내기가 쉬어서 꾸준히 필요 할 때마다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생활환경이나 성격 습관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전문가보다 더 편안하고 비공식적인 자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3) 위기상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새터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 교회신도, 교역자들이 직업적인 상담자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새터민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이나 교회 등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자를 훈련해서 유연성과 이동성을 갖추고 가능하면 빨리 위기에 처한 새터민들과 접촉해서 불안을 덜어주고 환경을 조절해서 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때로는 하나님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기를 사용하시기도 한다.²⁷⁾

4) 전화 및 컴퓨터 상담

상담실이나 상담자를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간편하고 위기에 적합하며 익명으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상담은 시간이 절약되며, 유용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터민들도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컴퓨터 상담을 개설하고 그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이러한 매체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전화상담에서 상담자가 주의 할 점은 내담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식해야 하고 또한 문제성 있는 전화통화자들을 구분해서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자살과 위탁상담

동료상담이나 전화상담은 가까운 사람의 자살 가능성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자살 가능성의 단서(구어적, 행동적, 기술적, 상황적, 징후적)를 포착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살행동의 충격적인 상황을 빨리 발견해서 그들을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나 상담원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인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자살 및 위탁상담에서 상담자의 책임은 먼저 상대방이 자살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평가에 근거해서 상담방법을 강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상대방의 자살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²⁸⁾ 따라서 탈북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겪고 또한 남한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많이 취약해 있는 새터민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의 전략을 마련해서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다.

6) 예방상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방상담의 중요한 예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삶의 목적),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삶의 표본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하나님 상기, 안정감 제공),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현재와 미래의 확실한 희망을 준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예방상담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즉 개입과 교육이다. 예방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예상하고 잘못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저항할 수 없는 난관을 예상하고 극복하며, 피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상담에서 일차적 예방은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이차적 예방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삼차적 예방은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과거의 나쁜 방식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²⁹⁾ 그러므로 먼저 새터민들을 상대로 기독교 교육 및 성경공부와 함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제도 및 문화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이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상담으로 다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정규적으로 예방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7) 교회에서의 집단상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게 되면, 교회는 교제와 봉사의 장소로 또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사랑으로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가 있다.³⁰⁾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서 첫째는 교제로,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게 되며, 이때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는 봉사로, 자이중심의 삶이 아닌 타인중심의 삶으로 서로 짐을 저주고 서로 섬기며 상호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성도의 실천의 생활이다. 셋째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에 의하여 자신과 이웃, 가정,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되고 용서되어지는 곳이다. 넷째는 성장으로, 교회는 성장 또는 성숙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은 새터민의 새로운 삶의 시작과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³¹⁾

8) 단기상담

새터민들은 상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하러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기상담을 원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장기치료를 받기 위한 시간이나 금전 혹은 동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단기 상담은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상담의 첫 단계에서 상담자는 먼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주의를 집중시켜 면밀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얘기하도록’ 권면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것이다.³²⁾ 그러므로 단기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배려 깊고 민감하며, 숙련되고 상담기법에 정통한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9) 타문화 상담

상담자들이 문화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힌 상담자’가 되어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발전을 향상시킬 수 없게 되며, 편견과 인종차별의식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내담자 사이의 가치관, 신념, 태도, 문화적 관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문화 상담에서 극복해야 할 장벽은 첫째 언어장벽이고 둘째는 편견과 상담자의 자긍심이며 또 하나의 장벽은 불안이다. 타문화 상담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면,

- ① 상담자는 내담자의 세계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해야 한다.
- ② 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인 관점에 민감해야 하며, 다른 문화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③ 상담자는 인종, 신념, 기대감, 사회적 배경 및 태도에 있어서 엄연히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당연하게 수용해야 한다.
- ④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타당한 대화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⑤ 상담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상담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³³⁾

비록 새터민들이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와 사상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과 언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터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습관을 이해하고 편견과 차별 없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문화 상담의 접근도 요구되고 있다.

IV. 닫는 글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터민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정책이나 지원 탈북자 개인의 역량, 주변의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탈북 주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이다. 많은 탈북주민들이 북한 이탈 이전부터 경제적 곤경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아왔으며, 또한 탈북과 도피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 등, 이미 새터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여기에 남한에 입국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들, 그 예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문제와 언어문제, 직장문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인간관계 어려움, 미래와 취업에 대한 어려움, 신체건강 문제, 및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등, 역시 새터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부담을 제공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물론 새로운 국가정책이나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특히 남한 사회에서 겪는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 상담을 새터민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상담전략으

로 지역사회상담, 동료상담, 위기상담, 예방상담, 교회에서의 집단상담, 단기상담, 타문화상담 등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들은 새터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신교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접근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전략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과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상담전략들이 새터민들의 신교와 상담에 실제적으로 유용되기까지는 기독교 사역자들이나 교육자, 기독교 전문인들과 함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새터민의 복음화와 연관된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과 전략들이 폭넓게 연구, 개발되고 더 나아가 북한 전문 기독교 상담자를 많이 배출해서 새터민의 적응을 돕는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과 민족 복음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그리스도대학교 “남북통합시대의 사회복지 연계망 구축 및 복지전문인력 양성.” 그리스도 대학교 '06 특성화사업신청서. 2006. 6. 8.
-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004, 295-308.
- 김재술.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종문화사. 1990.
- 김진수. “남북한 통일단계의 빈곤과 실업, 인구가동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 21(3). 2005, 157-184.
- 백태중. “교회의 치유사역에 있어서 사회참여를 통한 복음전파에 관한 연구.”

- 아세아연합신학대: 석사학위논문. 1998.
- 이기영.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적응과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2000.
-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2002, 175-224.
- 이기영 · 성향숙.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권. 2001, 243-271.
- 장혜경 · 김영란.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1.
- 전우택,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납북한 사람들의 통합전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6(1), 2002, 47-62.
- 조영아 · 전우택 · 유정자 · 엄진섭.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요인: 3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005, 467-484.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문제이해」. 2000, 21-42.
-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2001, 78-94.
- 한인영 · 이소래.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0호. 2002, 122-142.
- Beiser, M., & Hyman, I. "Refugees' time perspective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1997, 996-1002.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09. Gary R. Collins. 「창의적 상담 접근법」 정동섭(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Gary, R. Collins.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Narramore, C. M. *The Psychology of Counseling*. Grand Rapids : Zondorvan. 1995.

Clinebell, H. J.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N. Y.: Abingdon Press. 1996.

Fish, S. & Shelly, A.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Illinois: Inter Varsitypress. 1998.

후주

- 1) 한성선 외, “남북통합시대의 사회복지 연계망 구축 및 복지전문인력 양성” 그리스도대학교 (2006, 6): 8.
- 2)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1권(2001, 6): 78.
- 3) 한인영, 이소래,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비교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지」 제10호(2002): 122.
- 4) 그리스도대학교, 7.
- 5) 김진수, “남북한 통일단계의 빈곤과 실업, 인구가동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2005, 9): 173.
- 6)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문제이해」(서울: 통일개발과 연구협의회, 2000), 21-4.
- 7) 김진수, 173-4.
- 8)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비교연구,” 124.
- 9) hirte@kimib.co.kr
- 10) 조영아 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요인: 3년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2005): 478.
- 11) 이기영,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적응과정,”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2000):
- 12) 이기영, 성향숙,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47권(2001, 11): 244.
- 13) 전우택,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전망,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제6권(2002): 48.
- 14) 장혜경, 김영란,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

성개발원 연구보고서」(2001): 96.

15)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연구,” 93.

16) Beiser, M. & Hyman, I., “Refugees time perspective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97): 998.

17) 한인영, 이소래, 126.

18)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2002): 179.

19) hirte@kimib.co.kr

20)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Cross-Cultur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02), 109.

21) 금명자 외,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2004): 304.

22) Narramore, C. M., *The Psychology of Counseling* (Grand Rapids: Zondorvan, 1995), 243-52.

23) Gary R. Collins,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정태기 역, 「기독교상담사례연구」 (서울: 두란노, 1995), 28.

24) 정태기, 35.

25) S. Fish & J. A. Shelly,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Illinois: Inter Varsity, 1998), 38.

26) Gary R.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40.

27)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6), 157-60.

28) Gary R. Collins, *Innovative Approaches to Counseling*, 정동섭 역, 「창의적 상담 접근법」(서울: 두란노, 1995), 134-45.

29) Gary R. Collins, 156-70.

30) 김재술,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세종문화사, 1990), 233.

31) 백태중, “교회의 치유지역에 있어서 사회참여를 통한 복음전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8), 46-9.

32) Gary R. Collins, 135-48.

33) Gary R. Collins, 155-76.

Abstract

Survey of Christian Counselling Methods for Defectors who fail to assimilate into South Korea

Kyung-mi Kang

(Ph.D., Korea Christian University)

As the number of defectors increases, resettlement of the defectors in South Korea comes to the fore. There are many social and personal problems that they have to overcome, but the most difficult is keeping sound mind and family-ties. The defectors had suffered from financial, political, and social pressures before they came to South Korea. While they were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y experienced sever psychological trepidation. In addition, when they tried to resettle in South Korea, they confronted many problems that threaten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identity crisis, unemployment,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guiltiness about the family in North Korea.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cope with their frustration, the government has to offer proper policies. In addition, many counselling programs have to be provided for the them.

This paper surveyed how defectors' present problems could be dealt with the existing Christian counselling methods. These methods, however, lack some case studies. Thus, this paper could be used as a stepping stone to defectors' current problems.

Key words: defection, defectors from North Korea, resettlement, family-ties,
Christian counselling methods

K C I